

## 고령화 사회의 노인치료를 위한 윤리적 토대 구축: 생물의학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김진경\*\*

### I. 서론

오늘날 의학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죽음에 있어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으며, 그 결과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많은 나라들은 미처 이에 대해 대비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에 평균수명이 거의 80세에 이르게 되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11%나 되었다.

이렇듯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의료 혁신과 노인 임상 치료 영역의 발달은 노년 삶의 특징, 노인의 건강을 위한 가능성, 의학적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어 과거에는 전혀 예측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늙어감을 통해 나타나는 생물학적 현상과 질병을 의학적 혹은 병리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치료의 생물의학화 현상은 질병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악이며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치료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되고 늙어감의 현상과 죽음은 막아야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는 의사와 가족의 의무와 책임의 기준 및 범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환자의 신체는 나이에 상관없이 의학 지식과 기술에 의해 무제한으로 조작되어 정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생명 그 자체의 관리와 생명을 최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의료 전문가와 가족의 의무가 되었다.

그러나 늙어간다는 것은 인간 삶의 자연스런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상 치료, 특히 노인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8022963).

교신저자: 김진경,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윤리문화학과, 051-200-7139, regina@dau.ac.kr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윤리문화학과

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통해 노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노인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며 죽음을 맞아하기까지 존엄하게 대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과정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인생의 단계로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죽는 날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어가며 늙어감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치료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게 행해지는 생물의학적 치료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늙어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돌봄’에 근거한 노인 치료의 새로운 윤리적 토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생물의학적 치료 경향의 문제점

의료 혁신으로 인한 치료기술의 발달은 노인의 건강과 치료에 있어 과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생물의학적 치료 관점에서 바라보는 늙어감과 질병은 치료의 대상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생물의학적 치료 관점에서 죽음은 치료의 실패이며 의료가 추구하는 최선의 목적은 노화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치료의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우선적으로 현재 노인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생물의학적 현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 1.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선택’ 과정의 생략

생명과학과 노인 의학 치료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노인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치료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특히 질병의 원인을 규정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생의학(biomedicine)<sup>1)</sup>의 모형은 건강을 ‘생물학적 정상’으로 질병을 ‘생물학적 비정상’으로 단순화 시킴으로써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의료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늙어감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적으로 의학적 혹은 병리학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오직 생물의학적 치료만이 늙어감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치료과정이 노인을 치료하는 데 있어 적절하며 치료의 결과가 노인의 건강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더불어 이러한 치료의 과정이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치료는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일상 치료로 여겨지게 된다. 그리고 의료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치료의 경우, 그것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생략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상치료는 환자에게 언제나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고 일상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으로 여

1) 애트킨스(Atkinson)에 따르면 생의학적 모형은 사회, 문화 및 인생역정에 관한 설명을 배제하고 반드시 생물학적 구조와 과정에 발생하는 정체를 강조함으로써 환원주의의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이 의학적 사고를 지배하는 생의학적 모형은 임상에 적용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질환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체는 징후와 증상을 관찰해서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개개 환자는 질환이 발현하는 수동적인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질환은 ‘정상상태’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탈된 것으로 이해된다.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서울 : 푸른 사상, 2012 : 148.

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도의 의학지식과 기술로 인한 치료의 일상화는 의료 전문가로 하여금 개별 환자의 삶의 맥락에 대해 숙고하지 않게 하고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선택의 단계를 생략하게끔 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그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중단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그것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환자들, 미래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의사에 의해 행해진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sup>2)</sup>

이에 대해 에스테스(Estes)와 비니(Binney)는 늙어감의 대한 생물의학화는 의학적 개입을 필수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늙어감을 필연적인 쇠약, 질병 그리고 불가역적인 부패의 과정과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3)</sup> 그들에 따르면, 오직 생명과학의 발달만이 늙어감 내지는 노인 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면, 고령화 사회에 늙어감과 관련된 문제들은 점점 더 높은 비용의 의학 서비스들과 기술들을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이란 “단순히 허약성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well-being)”라고 정의하였다.<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의료는 인간의 건강을 정의함에 있어 환자들의 삶의 경험들에 귀 기울이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생물의학적 치료는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일상 치료가 되어 버리고 노인치료를 위한 표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늙어감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 2. 가족의 사랑과 생명 연장 의무와의 결합

생물의학적 치료의 일상화 경향으로 인해 노인에게 대한 부양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족 내에서의 돌봄과 사랑의 가치는 명백하게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도록 하는 의학적 치료 활동과 결합하고 있다. 즉, 치료의 일상화 경향은 환자들, 가족들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로 하여금 나이 많은 노인들조차도 모든 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강요한다. 그 결과 노인에게 대한 생물의학적 치료의 여부는 노인에게 대한 가족의 도덕적 책임의 기준이 되고 치료의 지속과 생명의 연장은 노인에게 대한 가족의 의무인 동시에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가족은 노인에게 질병과 관련된 모든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행해야만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야 하는 이중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죽음의 경우, 현재 우리는 죽음을

2) Sharon RK, Janet KS, Ann JR. Revisiting the biomedicalization of aging: clinical trends and ethical challenges. *The Gerontologist* 2004 ; 44(6) : 732.

3) Sharon RK, Janet KS, Ann JR. 위의 글(주2). 731.

4) 김수영, 모선희, 원영희 등. 노년사회학. 서울 : 학지사, 2009 : 88.

생의 자연스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라기보다는 질병의 결과 내지 질병 치료의 실패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은 죽어가는 사람 하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보살피고 정신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 장치를 거두어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의사의 결정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격적인 임종을 괴상한 것, 혹은 의학적으로 무지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병원의 힘은 인격적 가치, 진실한 감정, 가족의 생활 방식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죽음의 의미와 이야기를 영원히 변형시킨다.<sup>5)</sup>

더불어 생명 연장과 건강 회복 등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는 치료 과정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생물학적 치료의 과정이 적절하다는 희망을 이끌어낸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수술과 다른 의학적 치료를 경험하는 환자의 연령대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sup>6)</sup> 이러한 경향은 환자와 가족에게 의학치료는 언제나 고통스런 증상을 제거하고 삶의 희망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노인 치료에 있어 거부 의사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 내지는 포기라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 3. 삶의 자연적 과정으로서의 늙어감에 대한 거부

다니엘 칼라한(Daniel Callahan)은 20년 전에 의학 기관을 포함해서 미국 사회는 일상적 혹

은 자연적 삶의 기간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sup>7)</sup> 이것은 늙어감의 문제를 생물학적 영역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삶의 자연적 과정으로서 늙어감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의학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노화 현상 없이 나이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치료를 개발하고 있고, 그 결과 관리, 강화 그리고 노화를 더디게 하는 치료 사이의 경계선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늙어감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마저도 치료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생물학적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노화 현상 없이, 즉 지속적으로 젊음의 상태를 유지한 채 나이가 들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부담도 갖게 된 것이다. 건강과 생명 그 자체에 미치는 의학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이제 노인에게 있어서도 모든 치료를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 노화 현상은 더 이상 유한한 생명체인 인간이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방식에 따라 생애를 완성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의학적 기준이 규정한 매뉴얼에 맞춰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의학적 시술을 통해 노화 현상을 억제하고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치료, 회복, 강화와 더불어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기대와 결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적인 삶의 과정으로서 늙어감의 현상을 거부하고 점차적으로 가능한 한 젊음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생명을 최장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노인 치료에 있어 그들의 남은 삶의

5) Thomasma DC, Kushner TK, 김원구, 이상현, 이원봉 역. 탄생에서 죽음까지: 과학과 생명윤리. 서울 : 문예출판사, 2003 : 286.

6) Sharon RK, Janet KS, Ann JR. 위의 글(주2). 733.

7) Sharon RK, Janet KS, Ann JR. 위의 글(주2). 736.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비단 의학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치료를 위한 적절한 기준은 생물학적인 치료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개별 노인들의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세심한 돌봄을 실행하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III. 늙어감에 대한 이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어감에 따라 이전에 가졌던 많은 능력들을 상실하게 되고 삶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결과 자립성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은 삶의 질과 자신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어려우며 사회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 또한 확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인 치료의 맥락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노인은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쇠약해진, 그 결과 치료를 통해 신체의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노인치료를 위한 윤리적 토대를 모색하기에 앞서 인간의 삶에서 늙어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늙어감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체가 변하고 노쇠해지

고, 아프고 부패한다는 그리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노년기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며, 그 결과 다른 개인 혹은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해한다. 노인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변화기에 있으면서 특유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욕구충족의 결여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협, 역할의 상실, 심리적 고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의 불행에 대한 견해를 다음의 네 가지<sup>9)</sup>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첫째, 노년은 우리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둘째, 늙어감에 따라 우리의 육체는 허약해진다. 셋째, 노년은 우리로부터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간다. 넷째, 노년은 죽음에 가까이에 있다. 이에 따르면 늙음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늙음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늙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개인이 가지는 우수한 특성과 역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특성들을 소유한 자만을 대우하는 능력위주의 사회인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더불어 노년기에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의미와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빈곤, 고독, 노쇠, 죽음 등의 이미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데 반해 그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인으로 치부되는 현실은 낡음과 늙음을 동일시하게 되어 사물에만 적용되던

8) 이금재, 박인숙, 김분한. 노인의 의미에 대한 주관성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2000 ; 7(2) : 274.

9) 장영란. 늙음과 죽음의 윤리. 서양고전학연구 2009 ; 35 : 133.

‘납음=쓸모없음=폐기’라는 공식이 사람에게로 확장되어 노인에 대한 존경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sup>10)</sup>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노인으로부터 사회의 이탈을 설명하고 있는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는 노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다. 이탈이론은 늙어감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던 1950년대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이중 이탈의 목적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이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다.<sup>11)</sup> 그리고 이탈은 구체적으로 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며 그러한 축소의 과정을 통해 노인을 향한 감정이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표현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탈 이론에서 제시하는 노인의 이탈의 시기와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늙어감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이탈의 현상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탈 이론이 제시하는 중요한 가정은 노인에게 있어서의 이탈은 노인과 사회 모두에게 있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이론은 노인 차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브롬리(Bromly DB)는 다음의 세 가지<sup>12)</sup>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비판한다. 첫째, 일부 노인들이 은퇴 이후의 자유시간을 다른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이탈이론은 산업사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 구성원을 교체하려는 사회적 매커니즘을 만들어 내려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이는 노인을 사회로부터 이탈시키거나 경시하는 정책을 낳고, 노인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부정적인 태도를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탈이론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고 노인 자신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제 노인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노인은 사회적 참여로부터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노년기의 특성에 맞는 다른 형식의 사회적 역할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늙어감의 과정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편화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신체적인 힘과 정신적 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이전에 가지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 젊었을 때 수행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 측면에서 늙어감의 의미를 다양화시키고 노인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며 새로워진 열정, 성장, 자기 발전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생의 단계로서 노인을 바라보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2. 늙어감에 대한 의미의 재구성

오늘날 늙어감에 대한 생물의학화 경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적인 늙어감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늙어

10)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위의 글(주1), 125.

11) Callahan D. Setting Limits: Medical Goals in an Aging Society. 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5 : 34.

12) 이선영.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노화(aging)와 노인문제에 대한 소고. 신학과 신앙 2002 ; 13 : 208-209.

감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생명연장 혹은 거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늙어감은 인간의 삶에서 불행스럽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나이 든다는 것은 실천적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의미였고, 나이 든 사람들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살아 있는 기억 창고라는 특별한 명예를 차지하는 것이 전통이었다.<sup>13)</sup> 이러한 맥락에서 늙어감에 대한 의미는 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보건과 다른 사회적 이익의 분배를 위한 기본적 토대로서 늙어감에 의미는 새롭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 간의 책임감에 대한 논의와 기준 마련보다 다수 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전통적인 노인에 대한 의미를 발전시키는 데 큰 장애가 된다. 그러나 노인에게 심오하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늙어감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들과 미래 세대를 연결시키는 연속성의 의미를 가진 공동체의 문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개개의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은 긍정적이고 내면적 자아와 외부 세계가 관계하는 방식에서 일관성 있는 그리고 늙어감과 죽음에 직면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가족, 친구, 여가,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늙어감의 문제는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의 약화로 인해 노인이 사회적 역할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입

장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형식의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렌스(Lawrence DH)의 노년에 대해 저술한 로날드(Ronald Blythe)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로렌스의 힘은 소진되었으나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범위에서 일하는 법을 알았다고 지적한다.<sup>14)</sup>

...릴케도 과일이 그 씨를 품고 있듯이 애초부터 우리 내면에 품고 있는 완성의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서 노화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화란 고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공자는 노인을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장자는 노년은 지고한 형태의 삶으로 삶이 오래 지속되면 신이 된다고 하였다. 성경의 '신명'에서는 노년은 신의 축복이며, 노인에게는 복종과 존경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윤진은 노인은 가정, 사회 및 국가에 기여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서 성숙한 일생을 정리하는 유용한 존재라고 하였다.<sup>15)</sup>

인간이 영장류에서 인류로 진화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노인은 자신들이 진화해온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담은 저장고요,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였다.<sup>16)</sup>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늙어감을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나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노년은 인생 절정 이후의 쇠락과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행복이 머무는 지금 여기가 여전히 지속되는 시기이다.<sup>17)</sup> 따라서 긍정적인 새로운 노년 연구

13) Thomasma DC, Kushner TK. 위의 글(주5), 252.

14) Callahan D. 위의 글(주11), 36.

15) 이금재, 박인숙, 김분한. 위의 글(주8), 274.

16)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위의 글(주1), 182.

는 ‘상실과 저하’에 맞추어져 있던 기존의 의존적 시기로서의 노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반성하면서 노년담론을 ‘채움과 비움’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전환하여 노년의 잠재력 개발과 문제 예방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마련해야 한다.<sup>17)</sup> 노인치료 또한 이러한 늙어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이 가지는 다양한 삶의 맥락을 토대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 IV. 노인치료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생물의학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오랜 삶에 대한 기대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치료의 일상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 치료를 통해 죽음의 시기를 연기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80세 혹은 90세에도 인간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승인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은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생물의학적 치료 경향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의학 치료의 범위 밖에서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것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늙어간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늙어감은 인생의 자연스런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 시대에 현재 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라도 노인 치료의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숙고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노인 치료에서 생물의학적

치료의 중요성과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가치로서 ‘돌봄’의 의미와 그것의 실현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돌봄’을 통한 노인 치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 삶의 상호인간적인 면과 감정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진다. 따라서 취약함과 의존성은 일반적으로 약하거나 궁핍한 사람들에게 투영되고, 그 결과 노인과 같이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의 가치는 절하된다.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인 점과 감정적인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돌봄 가치의 중요성은 새롭게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자연스런 삶의 과정으로 취약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있어 돌봄의 차원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작업치료전문가인 미요시 하루키에 따르면, 노인은 가벼운 질병인 경우에도 그 신체의 장애를 계기로 중대한 생활장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노인은 심신의 상관관계가 강하기 때문이다.<sup>18)</sup>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생활전체에서의 통합적인 개입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돌봄은 대상자의 몸과 마음, 정신을 보듬어 살피는 일이다.<sup>20)</sup> 즉, 돌봄은 필요에 관해 인식하는 것, 해석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돌봄의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17)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위의 글(주1), 167.

18)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위의 글(주1), 138.

19) 이선영. 위의 글(주12), 215.

20) 돌봄은 대상자의 몸과 마음, 정신을 보듬어 살피는 일로서, 이를 위해서는 인간적 속성과 인간이 지닌 총체적 영역의 이해가 필요하다. 자세한 설명은 박명희, *돌봄의 미학*: 인문간호, 서울 : 푸른 사상, 2011 : 89-90.

이에 따라 행동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트론토(Tronto)는 사람들이 삶의 대부분을 돌봄을 주고받는데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도덕적 돌봄에 대한 문제가 중심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돌봄을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돌봄의 도덕적 실천(practice)<sup>21)</sup>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트론토는 돌봄의 관계와 그 과정을 네 가지 국면<sup>22)</sup>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이는 노인치료에서의 '돌봄'의 의미를 정립하는 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첫 번째 국면은 주의를 기울이는 국면으로서 주의를 기울임(attentiveness)의 덕목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율성과 독립성의 강조로 인해 신체상의 돌봄과 관련되는 것은 더욱 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담론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늙어감에 따라 자율성과 독립성이 약화된 노인은 사회공동체와 사회적 편견, 가족 성원 등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상처받기 쉬우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질병으로 신체적 기능이 쇠약해진 경우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더욱 더 느끼기 쉽다. 따라서 노인치료의 출발점은 노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국면에서 책임감(responsibility)은

책임을 떠맡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으로 개인 혹은 조직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 치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 내지는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치료에 대한 논의는 의료전문가 및 가족 책임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논의 및 책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국면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실천적 단계에 해당한다. 이 국면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필요하며, 이때 능력(competence)의 덕목이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의 덕목을 통해 노인과 우리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받는 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때 덕 윤리는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천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덕 윤리는 행동에 대해 부과되는 규칙보다는 개별 행위자의 판단, 경험, 이해, 반성과 성향에 강조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강조되는 실천이성의 능력은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도덕)법칙을 직관하는 능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의 도덕적 의미를 직관하는 이성이며, 또한 올바르게 (실천) 추론하는 이성이다.<sup>23)</sup> 따라서 덕스러운

21) 트론토(Tronto)는 이성과 감성의 구분을 해속하고 도덕성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아이디어는 '실천'으로 봐야한다고 제안한다. 실천이라는 개념은 돌봄을 도덕적 원리나 도덕적 정서로 간주하는 것과는 다른 보다 복잡한 개념으로, 돌봄의 실천에는 돌봄적 사고와 돌봄적 행위 둘 다를 포함하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통합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갖는다. 이숙정, 돌봄의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윤리적 접근, 도덕교육연구 2008 ; 20(1) : 15.

22) Liz L, A caring profession? The ethics of care and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006 ; 36 : 1178-1179; 이숙정, 위의 글(주21), 150.

돌봄의 제공자는 늙어감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노인 치료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반응(responsiveness)은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즉 이것은 치료를 담당하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돌봄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요를 요청하는 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며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에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성실성(integrity)은 위의 단계들을 연결하고 노인 치료에서 돌봄의 가치를 완성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다.

이상에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인 치료에 있어서 돌봄의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치료를 위한 돌봄의 실천은 개인적으로는 노인 치료에 참여하는 개인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위의 통합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환경적으로는 의료 그 자체를 돌봄의 공동체로 만듦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 2. 돌봄을 위한 소통의 강조

인간은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를 이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치료에서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이때 노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약한 노인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은 노인들이 요청하는 도덕적 가

치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 치료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딜레마와 논의들에 대한 해답은 상황 그 자체에 대한 그리고 행위자의 상황들, 필요들 그리고 의사결정능력들에 대한 심오하고 사려 깊은 숙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트론토에 따르면, 다양하게 논의되는 주장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상황에 대한 그리고 행위자의 상황들, 필요들 그리고 의사결정능력들에 대한 심오한 그리고 사려 깊은 지식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충돌하는 의견들에 대한 해결점들은 개인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은 당사자들 간에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언어주체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대화와 논의를 통해 보편적 합의를 추구하고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sup>24)</sup>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치료에서 노인이 갖게되는 감정과 우리의 그것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필요와 인식들을 확인하고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는 노인치료에 관계하는 의료 전문가와 가족은 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노인들이 가지는 늙어감과 질병에 대한 걱

23) 김진경, 의료윤리교육 방법론으로서 의사소통 행위이론의 가능성 모색: J. Habermas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7 ; 10(1) : 34.

24) Liz L. 위의 글(주22), 1182.

정과 염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필립스(Philips)에 따르면 목소리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연결을 촉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간의 염려를 강조하기 때문이다.<sup>25)</sup> 따라서 늙어감에 따라 노인들이 갖게 되는 위기의식에 대해 인식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료전문가와 가족의 소통에 대한 노력은 노인치료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치료를 위한 전문적 담론과 더불어 노인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함축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노인치료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늙어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인 문제는 오늘날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치료 영역에서 생명과학과 노인 임상 의학 치료 영역의 발전은 노인의 특징,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의사결정과 가족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늙어감과 노인에 대한 표준 임상 치료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노인 치료의 문제는 형이상학적 문제가 구체적인 삶 속에

서 발생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치료에 있어 질병 치료만을 강조하는 생물의학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노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돌봄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돌봄은 대상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 모두를 보살피는 것으로, 늙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노인을 치료함에 있어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돌봄’에 근거한 노인 치료의 윤리적 기준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치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의료전문가와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치료에서의 돌봄 가치의 강조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노인 자살 및 노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색인어

생물의학화, 늙어감, 노인환자, 돌봄

# Building the Ethical Foundations on Clinical Interventions for Old People in Aging Society: From Biomedicalization to Care\*

KIM Jin Kyong\*\*

## Abstract

With biomedical treatments being the predominant form of care for elderly patients in clinical situations, the only way for family members to show their affection and care for elderly patients is to be involved in these patients' medical treatments. In aging societies especially, there is a need for reflection on the paradigm of geriatrics, not only for the benefit of elderly patients, but for everyone.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importance of a type of care that reaches beyond standard medical treatments. We analyze the meaning of 'care' and consider different methods to achieve it alongside biomedical treatments.

## Keywords

biomedicalization, aging, elderly patients, car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5A8022963).

\*\* Department of Ethics, College of Humanities, Dong-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